



설장구에서 '설'은 '으뜸' 또는 '우두머리'라는 뜻으로, 설장구는 원래 장구 연주자 중 우두머리를 말하였으나 현대에는 여러 지역의 특징적인 장구 가락을 재구성하여 장구 독주 또는 장구 합주 형태로 무대화된 공연을 일컫는다.

바른 자세



채편
채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듯이 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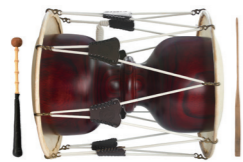


공편
공편은 팔을 들어 올리고, 공굴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.

- 허리를 곧게 펴고 책상다리로 앉는다.
- 채편이 몸의 중앙에 오도록 놓는다.
- 양발로 채편 안과 밖을 잡아 장구를 고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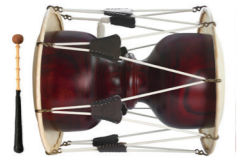
연주법

양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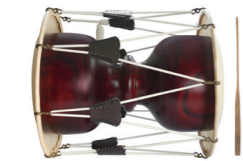
구음	연주법
땡·덩·더 (강·중·약)	공편과 채편을 같이 친다.

왼손



구음	연주법
쿵·궁·구 (강·중·약)	공굴채로 공편을 친다.
구궁	공굴채로 공편을 두 번 연달아 친다.
구르르르	공굴채로 공편을 굴린다.

오른손



구음	연주법
딱·따·다 (강·중·약)	열채로 채편을 친다.
기탁	열채로 채편을 겹쳐 친다.
다르르르	열채로 채편을 굴린다.

1 삼도설장구*장단을 구음으로 불러 보고, 장구로 연주해 보자.

● 굿거리

궁	궁	따	구궁	궁	따	구궁	궁	따	구궁	따	
덩			덩			덩		덩	(열		쑤)
덩	덩		덩	덩		덩		덩	(중		다)
덩			다르르르			따	궁	따	구궁	따	

● 덩덕궁이

덩			덩			덩		따	궁	따	
덩			더	궁		덩		따	궁	따	
덩		덩		덩		덩		덩		덩	
더	궁		더	궁		덩		따	궁	따	

● 동살풀이

덩		덩		덩	덩	따	따
더	더	덩	더	덩	덩	따	따
덩		따	따	구궁	따구	궁	딱
따구	궁	따	궁	따	궁	따	궁

● 휘모리

덩		덩		궁	따	궁	
덩		따	따	궁	딱	궁	
딱	구	궁	따	궁	따	궁	
딱	구	궁	따	궁	따	궁	덩

● 빨간색 구음 | 공굴채를 채편으로 넘겨서 연주한다.

* 삼도설장구 | 삼도(경기·충청, 호남, 영남)의 특징적인 장구 장단을 모아 재구성한 형태이다. 호흡을 고르는 다스름에서 시작하여 굿거리, 덩덕궁이, 동살풀이, 휘모리 순으로, 느린 가락에서 점점 빠른 가락으로 연주한다.